



전북농협-전주교도소, 농촌 일손돕기 나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18일 완주군 소양면의 한 농가에서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수용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마늘 수확과 고추밭 자주대 설치 작업을 도우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촌지역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과 교정당국이 함께 농가를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6월을 농촌 일손 집중지원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완주군 화산면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지원했으며, 오는 28일에는 순창지역에서 매실 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삼천초 등,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 협약

전주삼천초등학교(교장 강은숙)는 지난 17일 조은작은도서관과 학교지역기관 연계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름방학 중 교내 공사로 인해 돌봄교실 운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한시적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조은작은도서관은 방학 기간 동안 돌봄 운영 공간을 제공하며, 전주삼천초등학교는 해당 공간에서 돌봄 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남원 대강면, 지역주민 대상 민화 교실

남원시 대강면은 모두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민화 작가 김중숙과 함께하는 민화교실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민화교실은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해 총 17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민화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채색 기법을 익히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예술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강철 대강면장은 "모두배움터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라고 밝혔다.

한편, 수강생들이 완성한 작품은 교육 종료 후 대강면 가덕마을회관 2층에 전시해 주민들이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방관 선생님 화이팅!”

남원소방서, 비대면 소방관 직업 체험 진행
참사랑유치원 원아들로부터 감사 편지 받아

남원소방서는 관내 참사랑유치원 원아들로부터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림 편지를 전달받음에 소방서 전체가 훈훈한 감동으로 가득차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참사랑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소방관 직업 체험 및 안전교육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재 진압용 소방차와 구급차를 소개하고, 소방대원들이 실제 훈련하는 능률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이 평소 소방관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모니터 너머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교육 후,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참사랑유치원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소방차와



소방관을 그리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감사 편지를 작성해 남원소방서로 전달해 왔다.

남원소방서 교육 담당관은 "215년 소방 생활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편지를 받을 때면 그 어떤 순간보다 큰 보람과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자율방범대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논의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는 18일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감 토크에서는 신임 서장 취임 이후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과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에 대한 민·경 합동순찰 및 협조 체계 강화에 대해 서로 소통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관내 주요 계곡 하천 등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만큼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희 기자

북향민·전주시민들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요리 나눔

'남북요리사, 평화를 비비다' 오늘 전통문화전당서... 비빔밥 등 남북 대표 음식 직접 조리

북향민과 시민들이 함께 남북의 대표 음식을 만들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나누는 특별한 요리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통일부 지정 남북통일교육센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회(회장)가 공동 주최하고 자연음식문화원, 전북계례하나, 전북하나센터가 주관하는 남북요리사, 평화를 비비다 행사가 19일 오후 2시 한 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민족 명절인 단오를 맞아 도내 북향민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남북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비빔밥, 떡, 만두, 국수, 순대, 간편식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의 대표 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연에는 북향민 6개 팀과 요리전문가 6개 팀이 참여한다. 남측 팀은 전주비빔밥, 감자송편, 규아상 울쟁이국수, 오징어순대, 유부초밥과 닭꼬치를 선보이며, 북향민 팀은 해주비빔밥, 언감자떡, 임팔만배, 농마국수, 아미이순대,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을 만들어 남북 음식의 특색을 비교하고 공유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체험단도 12개 조로 나뉘어 경연팀과 함께 조리에 참여하며 남북 음식문화 체험에 동참한다.

행사에서는 전문 심사위원 5명과 시민체험단이 완성된 음식을 시식한 뒤 평가를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음식의 맛과 완성도뿐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의 협력과 창의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며,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통일교육센터 김성희 사무처장은 "음식의 고장 전북의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음식은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만큼 북향민과 시민들이 함께 요리하고 즐기며 경쟁과 화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내 평화통일 관련 기관과 음식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월 지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북계례하나를 2022년 이래 전국에서 유일한 민간단체 운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전북통일교육센터는 올해 '남북요리사, 평화를 비비다'를 비롯해 평화ON페스티벌, 평화통일시민대학, 순화강좌,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정읍농협, 보훈가족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0상자를 보훈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탁한 '사랑의 꾸러미'는 상자당 12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다. 쌀과 고기를 비롯해 화장지, 사물갑 등 회원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학군단 동문, 후배 위해 '녹두장학금' 전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학군단 동문들이 후배들의 학업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선후배 간 끈끈한 정을 이어갔다.

우석대학교는 학군단 6기 동문 30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녹두장학금 300만 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1층 베이커리 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정용덕 학생취업처장과 김지훈 학군단장, 동문임관 장교인 정현우·김은결 소위 등이 참석했다.

녹두장학금은 임관한 선배 장교들이 후배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우수 초급장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해 온 장학금이다.

특히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전통을 이어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장학금 전달액은 5,1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세계 알레르기 주간... 전북대병원, 찾아가는 릴레이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2026년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릴레이 캠페인'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세계 알레르기 주간'은 세계알레르기기구(WAO)가 매년 지정하는 글로벌 건강증진 캠페인으로, 올해 국내에서는 알레르기 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수업이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소리)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진료센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전북지회, 전북환경보건센터, 완주군보건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진료센터, 완주군청 대회의실 등 도내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첫날인 22일에는 전북대학교 진수당, 23일에는



완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는 이동노동자 센터 운영과 온열질환 예방 활동 등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진료센터 로비, 24일에는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운영된다.

전북대병원은 학생과 지역주민, 병원 방문객,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관리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 알레르기 피부다자검사와 간이 폐기능검사, 전문 의료진 및 상담사의 1대1 맞춤형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전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알레르기 바로 알기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생활 속 알레르기 예방수칙과 질환 관리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예방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자본센터,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이해 증진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남원고(1학년 6개 학급)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6월 18일에는 성원고 2·3학년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7월 9일에는 성원고 1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센터 전화(063-636-1365)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